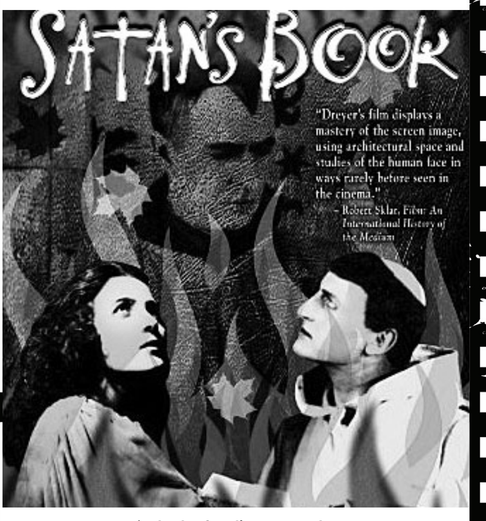
덴마크 거장 ‘칼 드레이어’를 만나다

광주극장·광주시네마테크 다음달 2일까지 회고전

영화사 고전~현대 잇는 다리 평가
인물 표정·침묵 통해 내면 그려
1919년 데뷔작 ‘재판장’ 등
무성영화·대표작 등 17편 상영

칼 드레이어 회고전 포스터

‘옛날 옛적에’ 포스터



‘사탄의 책’ 포스터

‘게르트루드’ 스틸컷

‘잔 다르크의 수난’, ‘뱀파이어’, ‘분노의 날’, ‘오데트’, ‘게르트루드’….

덴마크의 거장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회고전이 광주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6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칼 드레이어 회고전’을 연다.

드레이어(1889~1968)는 영화사에서 고전과 현대를 잇는 다리로 평가받는다. 극적인 사건보다 인물의 표정과 침묵을 통해 내면의 진실에 다가간 연출, 빛과 그림자를 극단적으로 활용한 화면 구성, 절제된 대사와 느린 호흡은 이후 유럽 예술영화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수아 트뤼포와 장 뤽 고다르 등 프랑스 누벨바그 감독들이 그를 존경의 대상으로 언급해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회고전은 초기 무성영화부터 대표작까지 장편 10편과 단편 7편을 상영해 그의 영화 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감독 데뷔작 ‘재판장’(1919)을 비롯해 ‘사탄의 책’(1921), ‘서로 사랑하라’(1922) 등은 표현주의적 경향과 종교적 상징을 결합한 초기 문제작들이다. ‘옛날 옛적에’(1922)는 동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민담 속 풍자와 낭만을 경쾌하게 그려내며, ‘집안의 주인’(1925)은 가부장적 권위 아래 놓인 가족의 일상을 실내극 형식으로 압축해 당대 유럽 영화 가운데서도 세련된 심리 묘사를 보여준다.

특히 ‘집안의 주인’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을 권력 구조의 축소판으로 바라본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유효한 젠더·권위 문제를 담아낸다. 북유럽의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글롬달의 신부’(1925)는 멜로드라마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인물들이 감당해야 할 사랑과 결단의 무게를 담담한 시선으로 따라가는 작품이다.

드레이어의 이름을 세계 영화사에 각인시킨 작품은 ‘잔 다르크의 수난’(1928)이다. 실존 인물 잔 다르크의 재판 과정을 다루면서도 역사적 스펙터클 대신 얼굴의 클로즈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배우 마리아 팔코네티의 표정은 신앙과 고통, 두려움과 확신이 교차하는 인간의 극점을 드러낸다.

유성영화 시기의 실험작 ‘뱀파이어’(1932)는 공포영화의 규칙을 비껴간다. 괴물의 형상보다 인물들이 감지하는 불안의 기척을 따라가며 꿈과 현실이 뒤섞인 몽환적 구조로 세계의 균열을 보여준다. 음울한 조명과 흐릿한 초점, 움직이는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시각화한다. 당대에는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예술영화와 아트 호러의 선구적 작품으로 재평가됐다.

17세기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분노의 날’(1943)은 마녀사냥과 종교적 광기를 통해 억압의 메커니즘을 그린다. 신앙과 욕망, 권위와 저항이 교차하는 서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사회의 긴장을 은유한다.

이후 신의 존재와 믿음을 정면으로 질문한 ‘오데트’(1955), 사랑과 자기실현을 조용한 시선으로 완결한 마지막 장편 ‘게르트루드’(1964)까지 감독의 영화 세계가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단편은 ‘좋은 엄마들’, ‘암과의 투쟁’, ‘마을의 교회’ 등 7편을 묶어 상영한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이번 회고전은 드레이어가 남긴 영화적 질문과 미학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고요한 화면 속에서 인간의 믿음과 내면을 응시해온 그의 작품 세계를 천천히 따라가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품별 자세한 시간표는 광주극장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 성인 1만원·청소년 9000원·실버 7000원, 디트릭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

암표 근절 등 K-콘텐츠 보호 강화

모든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불법복제물 즉시 접속 차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암표 행위도 처벌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그동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또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국제PEN광주’ 23호 나왔다

광주 문학상·올해의 작품상 등 소개…신작 수록도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제27차 국제PEN영호남문학인 대회에 참석한 문인들이 문정헌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PEN 제공〉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역위원회(이사장 박신영, 광주PEN)가 펴내는 ‘국제PEN광주’(23호)가 발간됐다.

특집으로 ‘제21회 국제PEN광주 문학상 및 제11회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을 소개했다. 이겨울의 ‘밤배’, 김용갑의 ‘불회사의 가을’, 이희규의 ‘안개 낀 여름’ 등 작품과 신작, 수상소감, 강경호 시인의 심사평이 수록됐다.

다른 특집으로 ‘국제PEN영호남문학인교류대회 주제발표’를 다뤘다.

기세규 광주유교대학 교수는 ‘王君이란!’ 주제의 글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제 왕권의 시대에서 살펴본 군주의 이미지를 세칭 저이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대통령(나아가 지방 단체장들)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도 이를 오버랩 시켜 고찰해봄도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며 “작금의 시대에 우리의 정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초대석에는 국제PEN경주 시인들의 시, 수필, 동화가 실렸다.

회원 작품에는 강나루, 강대선, 강만, 오덕렬, 이근모, 조필, 홍영숙 시인의 작품이, 시조에는 노창수, 박래흥, 서연정, 윤영숙, 이전안 시인의 시조가 실렸다. 수필에는 김한호, 윤소천, 최은정, 탁인석 수필가의 작품이, 소설에는 서용좌 작가의 작품이 수록됐다.

희곡에 오인철 작가, 평론에 강경호 시인의 글도 지면을 장식했다.

탐방기인 정소영 작가의 ‘문향으로 다가온 서라벌’도 만날 수 있다.

한편 박신영 이사장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글을 통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글이라는 매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위안이 되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며 “혼자 걸으면 길이고 같이 걸으면 역사가 된다고 했다. 앞으로도 우리로 함께 걸어 역사가 되고 희망이 되는 글을 써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비 초등 양육자를 위한 입학 가이드

광주여성민우회, 12일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서 강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양육자들에게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아이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전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 현직 교사가 직접 안내하는 강좌가 마련된다.

광주여성민우회(민우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예비 초등 양육자를 위한 입학 가이드’를 연다. 참여 대상은 예비 초등학생을 둔 양육자 25명 내외다.

이번 강좌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양육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입학 전 준비 사항을 비롯해 학교생활 적응, 학업과 또래 관계 등 초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사와의 소통 방법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내용도 함께 다룬다.

강의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준한이 맡아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겪는 변화와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양육자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점들을 짚어줄 계획이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민우회에 문의하면 된다.

민우회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뿐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큰 전환점”이라며 “이번 아이의 학교생활을 한결 편안하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비 5000원(회원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